

# 욕망의 정치/욕망의 종교와 학문함의 의미

윤상현(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윤리/역사 4-1)

## 논문초록

이 소고는 인간 욕망의 근원과 양상을 다룬 르네 지라르의 인문학적 논의와 관련지어 한국사회가 '모방 욕망'의 현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사회정치적 현상의 증상에 소위 욕망의 정치와 욕망의 종교가 자리하고 서로 욕망의 주체와 매개자(모델)로 작동하는 이중 매개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 편만해 있는 '모방 욕망'을 강화하고 재생산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지적과 확인은 에드워드 W. 사이드가 말한 바 공정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부조리한 상황을 부정하고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므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다스림'의 역할을 하는 정치(政治)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통로인 신앙이 욕망의 정치와 욕망의 종교로 전락한 맥락을 살피고 그 대안의 일환으로서 온전한 복음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와 더불어 (기독교)대학의 의미와 역할을 '거룩한 확장'으로 규정하고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모방 욕망, (기독교) 대학, 매개(중개) 현상, 욕망의 정치, 욕망의 종교, 온전한 복음,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

## I. 서론: 모방 욕망에 관하여

르네 지라르는 인간 욕망의 근원과 양상을 다루는 그의 문학비평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욕망의 근원이 욕망의 주체인 사람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간의 욕망은 결코 내부에서 자연 발생하지 않으며 욕망의 매개자/중개자로 이름 지어지는 제3자에 의해 매개/중개된 욕망으로 본다.<sup>1)</sup> 그에 의하면 돈키호테의 욕망은 전설의 기사인 아마디스를 모방한 것이며 아마디스라는 대기사는 매개자/중개자로서 욕망의 모델이며 돈키호테는 모방 욕망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다. 지라르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비롯하여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의 이야기>, 스탕달의 <적과 흑><sup>2)</sup> 등의 문학작품의 비평을 통해 인간의 모방 욕망을 정교하게 분석하는데 그의 논점은 “[많은] 작가들[이] 스스로가 욕망의 자율성이라는 ‘낭만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소수의 위대한 작가들은 그 환상을 해체하고 교묘하게 은닉되어 있는 욕망을 드러내므로 ‘소설적 진실’을 폭로하는”<sup>3)</sup> 것이다. 모방 욕망이란 타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키며 타인의 속성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우월한 위치에 이르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욕망을 말한다.

김모세는 우리 사회에서 목도되는 ‘명품족’, ‘신데렐라족’, ‘성형의 열풍’이라 불리는 현상의 본질은 다름 아닌 모방 욕망의 실현이며 사회집단의 정체성이나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서는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발사의 대야를 맘브리노의 투구로 착각하는 돈키호테의 광기처럼 명품 구입에 목숨을 걸고 분수에 넘치는 호화파티를 일삼는 신데렐라족의 행태는 상류계층이 욕망의 매개자/중개자가 되어 그들과 같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현실을 체험하고 귀족이 되어 보고자하는 욕망, 즉 욕망의 모델의 우월성을 전제하고 그 우월성을 모방함으로써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형이상학적 욕망이라는 것이다.<sup>4)</sup>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의 텍스트를 통해 지라르는 악령에 들린다는 것을 모방 욕망에 빠지는 것과 동일시한다. 그에 따르면 등장인물들에게 욕망의 매개자/중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는 니콜라이 스타브로긴이다. 스타브로긴에 대한 집단 전체의 모방 현상은 집단 구성원 전체의 차이 소멸로 이어지고 집단 전체가 파멸의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르트르의 표현을 빌리면 “타인이 지옥”인 상황으로 구성원 전체가 무한 경쟁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다.

## II. 욕망의 정치와 욕망의 종교

서윤영은 인간의 욕망과 건축의 관계 지움을 성찰하는 글에서 백화점의 탄생을 언급하면서 전통적으로 상류계층이 주로 이용하던 상점들이 출입을 제한하는 ‘배제’의 전략을 사용한 것에 반해 자유롭게 상점에 들어와 구경하며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흡인’의 전략을 사용하여 상류층 혹은

1)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서울: 한길사, 2001), 김치수, 송의경 역, 23쪽.

2) <보바리 부인>의 여주인공 엠마 보바리는 사춘기 시절에 읽었던 삼류소설과 잡지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을 모방하여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싶어 하며 <적과 흑>에 등장하는 레날은 발르노와의 경쟁관계에서 이기기 위해 주인공 쥘리앵을 가정교사로 발탁하는데 이 또한 레날과 발르노가 서로 경쟁적으로 욕망하는 것으로 본다. 르네 지라르, 앞의 책, 26-28쪽.

3) 김모세,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서울: 살림, 2008), 40쪽.

4) 앞의 책, 53-55쪽.

상위 중산층의 소비 형태를 중산층 혹은 하위 중산층이 모방할 수 있도록 했다.<sup>5)</sup> 이러한 과거 상류층의 특정소비형태가 전파되어 더 이상 특정계층의 아비투스(habitus)를 통한 구별이 어려워지자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의 욕망적 투사로 특정 문화소비라는 행태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이 매매할 수 있는 상품 중 가장 값비싼 것이면서 또한 실재가 없는 매우 모순적인 상품”<sup>6)</sup>인 아파트의 이미지 광고에서 이미지가 실재를 능가하는 소위 시물라시옹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음악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로비에서 오랜만에 만난 여고 동창생들이 인사를 하며 재빠르게 서로의 옷과 구두, 핸드백을 훑어본다. 바로 그때 ‘미안, 조금 늦었지, 어서 들어가자’라고 말하며 나타나는 여성이 있다. 간단한 검정 원피스를 입고 그 어떤 장신구도 하지 않은 채 다만 손에 대충 맡아 쥔 연주회 팸플릿과 함께 R아파트의 로고가 새겨진 열쇠고리가 들려 있다.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R 아파트 광고로서... 음악회에 가는 행위가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팸플릿은 대충 손에 맡아 쥐고 있고 그 ‘고급스럽고 지성적이며 어린 시절부터 잘 교육받은’ 이미지 위에 R 아파트의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팸플릿 위에 아파트의 로고가 새겨진 열쇠고리를 쥐고 등장한 것이다. (121쪽)

오랜만에 여고 동창생들이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여성이 승용차 뒷자리에 친구와 그녀의 아이를 태웠다. ‘대단하신데요, 운차장님’ 차장으로 승진을 하고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커리어우먼은 승자의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뒷자리의 동창생에게 묻는다, ‘집이 이 근처였지.’ 바로 그때 친구의 아이가 반갑게 소리친다. 우리 집이다! 창밖으로 R 아파트가 보이고 세련된 커리어 우먼은 뒷자리의 전업주부를 세삼 다시 바라본다, 네가 더 대단하다고. (122쪽)

저자는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는 것과 R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동급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광고는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진단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욕망의 정치가 이 시물라시옹의 현상을 부추기며 조장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정보와 대중 매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인식되는 현실의 이미지가 실재를 지배하고 도덕적 당위를 대체하는 시물라시옹의 질서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는 현실 속에 내재(內在)한 정치의 역할이 그러한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는 것’<sup>7)</sup>이라고 보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에 따른 신실한 기능의 이행을 의미한다면 작금의 정치의 위상은 자신들의 통치 행위가 미치는 범주와 영향력과 결과에 주목하기 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하에 지배와 소유의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복무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함민복은 이러한 욕망의 폭력적 맹목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5) 서운영,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한다> (서울: 궁리, 2009), 56-57쪽.

6) 앞의 책, 117쪽.

7) 공자는 정치의 목적을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정명론을 우리의 논의의 맥락에서 보면 이미지가 실재를 역전시키는 시물라시옹의 질서를 해체하고 이름과 실제의 관계를 “재역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어서도 주위 환경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는  
 카멜레온의 목시록을 본다  
 정직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한 저 폭력성  
 티브이는 티브이 밖 시청자들의  
 욕망에 맞춰 색조를 바꾸며 다가와  
 우리 무당벌레 같은 영혼을 삼시간에  
 삼켜 먹으며 한 세계를 이루고  
 결국엔 확, 무서운 헛바다<sup>8)</sup>

이러한 욕망의 정치의 대척점에 서서 사물이 기호로 대체되고 헥타르나 미터로 따질 수 없는 나무와 산과 강의 이야기가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고 이미지가 실재를 공공연히 지배하려는 이 시대정신(Zeitgeist)을 향해 경종을 울려야 하는 종교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욕망의 매개/중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 개신교의 7,80년대의 가히 놀랄만한 폭발적인 성장 곡선은 80년대 중반기 이후 주춤해졌고 9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다.<sup>9)</sup> 조성동 교수는 서구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종교가 자리를 잃고 초월성을 합리성에 내어주었던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더 이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종교 이후기’라는 단순한 분석으로는 개신교의 격감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실제로 1995-2005년 사이 종교 인구는 50.7%에서 53.1%로 증가하였고 절대인구로 237만 명이 증가하였다고 한다.<sup>10)</sup> 여러 학자들이 현재 정체의 원인을 한국 개신교의 사회정치적 보수주의 내지 근본주의의 성향, 적응주의의 노선을 취하고 한국의 근대주의적 이데올로기인 자본주의, 친미주의, 반공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는 것은 수긍할 만한 지적이며 이것은 개신교의 신앙적 행태가 욕망의 정치의 매개자/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지와 맥을 같이 한다.<sup>11)</sup> 정재영은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정치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는 권고 사항은, 선거가 있기 전 약 3개월 전부터 지역의 대형교회에 출석하라는 것이다.”<sup>12)</sup>

욕망의 정치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개발’의 이름으로 ‘변혁’의 수고를 대신하며 ‘변화’의 의미를 특정한 정치 행위자의 욕망이 중심이 된 자의적 ‘재구성’으로 치환시켜 버린다. 이때 욕망의 매개/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상에 대한 ‘초월적 가치의 부여’라는 본래적 소명에서 이탈한 종교로서 사유화(privatization)와 영화(spiritualization)의 여과과정을 통해 ‘사회정치학적 휘발성’을 상실한 욕망의 중

8) 함민복, “아남 내셔널 텔레비전”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서울: 창비, 1996), 70쪽.

9) 종교사회학자 정재영은 그의 논문 “개종자를 통해 본 한국인의 종교성”이라는 논문에서 2005년 통계청 자료를 빌어 불교는 3.9% 증가했고 천주교는 74.4% 증가한 반면에 기독교는 1.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해 연도 조사가 전수조사로서 어떤 조사보다도 신뢰도가 높다고 덧붙이고 있다 (조성돈, 정재영 엮음, <그들은 왜 가톨릭교회로 갔을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73-95쪽.

10) 조성동, <목회사회학: 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와 생활신앙> (서울: 토라, 2004).

11) 광창대, “최근 한국 개신교의 교세 감소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논문집, 2003). 노치준, <한국 개신교 사회학> (서울: 한울, 1998).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서울: 푸른역사), 301-345쪽.

12) 정재영, 앞의 논문, <그들은 왜 가톨릭으로 갔을까?> (한동대학교 학문과신앙 연구소 공개 세미나 및 특강, 2009), 9쪽.

교로 전락하는 것이다.

욕망의 종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항 대립적 관점에서 보도록 강요하여 각각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자의적 가치를 부여하고 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전자를 도외시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혹은 그 과정에서 욕망의 정치가 낳은 부조리한 양상들의 전경(全景)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한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소극을 연출하는 것과 다름없다.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보이는 것’이 실제의 모두요 전부라고 보는 자연주의적 관점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실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형이상학적 객관성을 지닌 실재와 사실들은 우리의 인식론적 객관성이나 주관성을 넘어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목전에 놓인 ‘보이는 것’을 눈을 감고 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한마디로 욕망의 종교는 눈을 감게 한다. 눈을 감고 역사문화 공간을 떠나 개인의 사적 세계로 은둔하거나 맹목적인 ‘좌충우돌’을 감행하여 그 폐해를 고스란히 타인과 공동체에 떠넘기고 만다. 흥미로운 사실은 욕망의 종교는 역으로 욕망의 정치를 매개로 하여 그 행태를 모방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조차 경쟁적인 사회상이 반복되고 있는 현상, 출세와 재력, 권력의 역동이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추앙되고 숭상되고 있는 모습, 세상을 섬기는 가장 고결한 행위 가운데 속하는 선교적 행위에서 목도되는 호전성과 제국주의적 태도 등이 모방 욕망의 구체적인 예가 되겠다.

지라르는 모방 욕망이 사회의 구성과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욕망의 주체와 욕망의 매개자/중개자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 상대방을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필연적으로 서로 자신의 욕망의 우선권을 주장하므로 대립과 갈등의 골이 심화되어 두 주체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욕망이 강렬해질수록, 양자의 차이는 줄어들고, 서로 닮은 한 쌍의 원수들만 남게 된다고 보았다.<sup>13)</sup> 지라르의 분석에 의하면 모방욕망에 빠진 인물들은 매개자에게 부여된 특권과 우월성으로 인해 욕망의 대상에 환상적 가치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외부세계에서 폐쇄적인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 욕망의 주체들은 타자의 시선이 내재화되어 자기경멸의 시각을 갖는다고 보았다.<sup>14)</sup>

이러한 지라르의 통찰은 톨킨이 그의 연작 <반지의 제왕>에서 서술한 사우론으로 대표되는 악의 치명적 결함과 연결된다. 사우론은 만사를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여 타인의 입장과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오직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만이 있을 뿐이다. 절대반지는 인간존재의 지칠 줄 모르는 욕망 - 소유와 지배의 욕망 -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이 욕망을 자극하므로 끝없는 불만족 속에 처하게 하여 결국은 인간 자신의 존재를 허무는 악을 상징한다. 지혜로운 간달프는 이렇게 경고한다. “[반지는] 치명적인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지에 대한 욕망,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현자들 중 한 명이 반지를 가지고 또 그의 지혜를 이용하여 모르도르의 군주를 무찌를 수 있다면 그는 곧 사우론의 권자에 스스로 오를 것이며, 따라서 또 하나의 암흑의 군주가 탄생하는 거지요.” 반지에 대한 욕망은 매개자/중개자인 사우론에 의해 강화되며 그 악은 욕망의 주체인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을 간달프는 간파한 것이다.<sup>15)</sup>

13) 김모세, 앞의 책, 108-109쪽.

14) 김모세, 앞의 책, 93쪽.

### III. 실재의식과 주체의식

모방욕망의 형이상학에서 몰각되는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것은 실재의식과 주체의식의 상실이다.

마가복음서 8장을 보면 주께서 두 번 안수하여 눈을 뜨던 소경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건은 하나님(天)에 대한 신앙의 회복을 “보는 것”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비유이다. 눈을 뜬 소경은 당연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人)을 알아본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나무들”처럼 보인다. 두 번째 안수를 통해 비로소 그는 시력을 온전히 회복하여 “만물을 밝히 보게” 된다. 사람과 사물을 어느 특정한 한가지로 환원하여 부분적으로 파악하던 것이 확장되어 존 스토트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이제는 사람과 사물을 통전적으로 (wholistically) - 예컨대 사람의 경우 “공동체 속의 육체-영혼 (a body-soul in community)”<sup>16)</sup>으로 - 이해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을 나무로 이해한다면 바른 섬김은 불가능하다. 이 사건은 신앙을 회복하고 기독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실재 의식을 회복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실재의식의 회복은 구체적인 역사문화 공간에서 역사의식과 상황인식으로 표출된다.<sup>17)</sup> 더불어 작가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는 이순신의 실재의식을 살피는 데 적절한 도움을 준다. 무기력한 임금의 두려운 의심, “헛것을 정밀하게 짜 맞추어 충과 의의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위관들의 가없는 언어는 모두 아무 곳에도 없어 보이는 피난처를 향해 죽을힘을 다하여 가고 있던 백성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었지만, ‘바다의 사실’에 입각하여 그는 명량 울돌목에서 적 삼백 척을 ‘삼백 개의 한 척’으로 궤멸 시키고야 만다.<sup>18)</sup>

타자의 시선이 내재화된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체적인 자기인식과 타자인식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모방욕망은 존재론적 차원과 구체적인 역사문화공간적 차원에서 자기비하와 자기경멸이 수반되고 오리엔탈리즘적 의식에 함몰되고야 만다. 흔히 서양이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오리엔탈리즘은 유럽 서양인의 경험적 인식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하는 것인데 모방욕망의 추종자는 모방의 매개자/중개자의 우월성에 대한 환상으로 인해 레비나스가 말한 바, ‘자기성’을 지닌 향유의 주체성과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환대로서의 주체성’ 모두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sup>19)</sup> 세계와 접촉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식인 향유를 경험하고 결코 ‘나’로 환원될 수 없는 타인을 만남으로 누리게 되는 삶이 바로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이다.<sup>20)</sup>

서구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보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경시한 점을 되살피는 것은 신앙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하지만 동시에 모방욕망으로 인한 주체의식의 함몰 차원에서 더욱 의미롭다. 박경서는 복음의 보편성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특수성에 뿌리를 박는 과정에서 서구문화를 대동하고 전래된 이유 때문에 복음과 서구문화를 동일시하는 경향을 낳고 말았다고

15) 이자벨스 마자, <반지의 제왕, 혹은 악의 유혹> (서울: 씨앗을뿌리는사람, 2003).

16) 존 스토트,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17) 이만열 교수의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과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 (서울: 지식산업사, 2010)는 구체적인 사례와 본을 제시한다.

18) 김훈, <칼의 노래> (서울: 생각의 나무, 2001)

19)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40-41쪽.

20) 앞의 책, 41-42쪽.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서구문화의 잣대로 전통문화를 심판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부끄러운 문화’인 양 여기게 되어 스스로의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는 그의 지적은 타당하다.<sup>21)</sup>

#### IV. 욕망의 학문을 거부하며

욕망의 정치와 욕망의 종교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파괴적인 상승작용을 멈추게 하고 깊어지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욕망의 학문, 곡학아세(曲學阿世)의 학문을 거부하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인신 그리스도께서 중심되신 학문 행위가 요청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학자를 포함하여]이 모든 곳[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것[학문의 영역을 포함하여]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소명이라고 본 오스 기니스의 말<sup>22)</sup>에 동의한다면 인간의 불순종과 죄를 통하여 마귀에 의해 조장된 왜곡과 억압의 체제와 상황 - 마귀의 사역을 떨하시려고 오신 주님의 대의에 학문 영역에서 복무해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교회공동체, 학교공동체, 가정, 우리 개개인을 모두 포함한다)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성숙이원론과 혼합주의의 뿌리를 캐내어야 한다. 둘은 서로를 부정적으로 강화시킨다. 성숙이원론의 폐해를 가리키며 성서적 원칙을 배제한 타협을 시도하거나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로서 구별되지 않은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언필칭 세상과 세속의 ‘구별’을 운운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를 택하기도 한다. 엘리스터 맥그래스는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에서 교회와 세계에 대한 비관주의, 사회적 무관심,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공격적 심성과 적대의식, 지적인 열등의식, 고립주의 등은 ...개인적인 경험과 온전한 복음의 빛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설교와 상담의 결과라고 진단한다.<sup>23)</sup> 그것은 미성숙한 신학의 문제이다.

학문분야에서 빈곤과 결핍을 경험하는 원인 가운데 세계관(Weltanschauung)은 확보되었지만 세계상(Weltbildung)에 대한 확보의 미비함이 있다. 객관적인 세계상의 충분한 이해와 확보의 부재는 마치 고성능의 망원경을 소유하고도 좁은 방 안에 머무는 것과 같아 세계관의 역동과 유효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계관 무용론을 결과하고 축소되고 왜곡된 삶을 낳게 된다. 지도는 길을 떠나는 이에게 유용한 법이다. ‘세계’는 지금 여기를 포함한 역사문화공간과 영역을 말하며 세계상의 확보란 연구와 참여를 통한 개입을 의미한다. 학문함의 의미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고 방어하는 것에서부터 세계를 바라보고 그 이해와 해석에 근거한 삶과 살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 아우른다.

모방 욕망으로 귀신들린 시대 속에서 “정신과 영혼을 함락시키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 원리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지금 여기의 소명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조용하는 삶과 살림에 몰입하는 제자도의 치열한 실천이 요청된다. 욕망의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매개자/중개자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라는 목

21) 박경서, <wcc 창으로 본 70년대 한국민주화인식> (서울: 지식산업사, 2010), 207쪽.

22) 오스 기니스, <소명> (서울: IVP, 2000), 53쪽.

23) 엘리스터 맥그래스,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서울: 기독교문사, 1997), 신상길 역.

표에 주체적으로 몰입할 때만이 욕망의 정치와 욕망의 종교가 토해내는 ‘비루함’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 진정한 학문과 신앙은 매개자/중개자의 우월성을 모방함으로 자기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형이상학적 욕망을 해체하고 통찰과 분석과 운동을 통하여 “생각하기”와 “분류하고 이름 짓기” 그리고 “도모하고 만들기”의 역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 곽창대, “최근 한국 개신교의 교세 감소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논문집, 2003).
- 김모세,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서울: 살림, 2008).
- 김훈, <칼의 노래> (서울: 생각의 나무, 2001).
- 노치준, <한국 개신교 사회학> (서울: 한울, 1998).
-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서울: 푸른역사).
-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서울: 한길사, 2001), 김치수, 송의경 역.
- 박경서, <wcc 창으로 본 70년대 한국민주화인식> (서울: 지식산업사, 2010).
- 서윤영,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하다> (서울: 공리, 2009).
- 엘리스터 맥그래스,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서울: 기독교문사, 1997).
- 오스 기니스, <소명> (서울: IVP, 2000).
- 이만열,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 (서울: 지식산업사, 2010).
- 이자벨스 마자, <반지의 제왕, 혹은 악의 유혹> (서울: 씨앗을뿌리는사람, 2003).
- 조성동, <목회사회학: 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와 생활신앙> (서울: 토라, 2004).
- 조성돈, 정재영 엮음, <그들은 왜 가톨릭교회로 갔을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 존 스토틀,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함민복, “아남 내셔널 텔레비전”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서울: 창비, 1996).

### 약력

윤상현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영어(BA, MA)를 전공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대학원에서  
 언어학(Ph.D)을 공부하고 현재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에서  
 언어학과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한동 학문과신앙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한 바 있고  
 포항충진교회(고신) 장로로 섬기고 있음.